

국가별 동향



미 국

주인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‘애완 닭’ 화제



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빼놓지 않고 함께 다니는 닭이 화제가 되고 있다. 영국 일간 메트로에는 한 암탉, 크룩스와 주인의 특별한 사연을 보도했다. 뉴욕에 사는 30살 스펜서 맥코믹 씨는 크룩스가 병아리였을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다.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상자에서 크룩스가 들어있었던 것이다.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난 뒤, 맥코믹 씨는 크룩스가 가진 장애를 알게 되었다. 부리가 엑스 자로 영켜서 음식을 먹는 게 어려웠던 것이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맥코믹 씨는 크룩스에게 더 큰 애착을 느꼈고, 이 기형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크룩스를 항상 데리고 다니며 챙겨 주게 되었다고 한다. 크룩스는 먹는 걸 좋아하고 활동성도 강한데, 가장 좋아하는 건 스펜서 씨의 어깨라고 한다. [SBS뉴스]



중 국

중서 남자아이 소변에 삶은 계란 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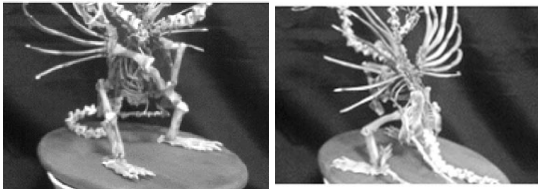


중국 저장(浙江)성 동양(東陽)시에서 남자아이의 소변에 삶은 계란이 인기를 끌고 있다. ‘이차이나 시티스(eChinaCities)’에 따르면 동양에서는 ‘숫총각 계란’이라는 음식이 몇 해 전부터 개당 2위안(약 340원)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. 만드는 법은 간단 하다. 먼저 냄비에 남자아이 소변과 계란을 넣고 팔팔 끓인다. 잠시 뒤 계란을 꺼내 껍데기를 깬 뒤 냄비에 넣고 끓이기를 반복한다. 조리를 마친 계란은 옅은 황금빛을 띄며 매우 짠 맛이 난다고 알려졌다. 주민들은 이 요리가 정력과 혈액 순환에 좋다고 믿고 뇌졸중을 방지한다는 속설도 있다. 과학자들은 그러나 소변을 마신다고 딱히 건강에 좋은 점은 없다고 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. [뉴시스]



일본

치킨 뼈 이어 붙여 만든 괴물 '킹 기도라'



치킨 뼈로 괴물을 만든 일본 예술가가 화제다. 프랜차이즈 통닭 13마리의 뼈를 한땀한땀 이어 붙여 '킹 기도라(히드라)' 뼈대 모형을 만들었다. 킹 기도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'고지라' 시리즈에 등장하는 악역 괴물이다. 겉모습은 마치 익룡 같다. 이 일본 예술가는 자신을 '뼈 아티스트'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TV출연 요청이 쇄도중이라고 한다. [위키투리]



영국

닭 뼈가 '인류세' 대표 화석에 등극하기까지

지질학자의 분류대로라면 현재는 1885년 만국지질학회에서 채택한 '현세(現世 · Holocene)'로 분류된다. 그러나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네덜란드 화학자인 파울 크뤼첸은 지난 2000년 현세를 '인류세(Anthropocene · 人類世)'로 명명해 별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.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국제지질학연합 '국제지질학회의(IGC)'에서 각국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인류세 워킹그룹(AWG)은 1950년께 지구가 '인류세'에 돌입했

음을 선포하도록 권고했다. 이들은 원자폭탄 실험으로 생긴 방사성 물질, 플라스틱의 급증과 함께 닭 뼈의 증가를 다른 시기와 명확히 구분될 인류세 진입의 확실한 증표로 꼽았다. 공룡 뼈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백악기말을 대표하는 화석이 된 것처럼 닭 뼈가 미래 지질학자에게 '인류세를 대표할 화석'이라고 이들은 장담했다.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 까닭을 소개하며 닭 사육 실태, 소비 현황, 품종 개발의 역사 등을 되짚었다. 닭은 한해 600억 마리가 소비돼 70억 인류가 8마리 반을 먹는 꼴로 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조류로 꼽힌다. 인류세 워킹그룹을 이끈 얀 잘라시에비치 영국 레스터대 교수는 "닭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조류가 됐다"며 "세계 수천 곳의 쓰레기 매립지와 길모퉁이에서는 닭 뼈가 화석으로 바뀌고 있다"고 설명했다. 닭고기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2020년에는 닭이 돼지고기를 따돌리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가 될 것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는 전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**양계**

